혐기성접착제시장“ 큰걸음"

국내시장 100억원규모 … Loctite · SKC · 쓰리본드 경쟁 가열

국내 혐기성접착제 시장이 제조업부문의 경기회복과 용도다변화로 94년 20%이상 신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혐기성접착제의 국내시장은 최소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시장규모에 대해 여러가지 이견이 있지만 매년 높은 신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기성접착제의 이러한 성장은 협기성접착제가 가지고 있는 비용절감 효과와 용도다변화에 따른 수요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용절감의 일례로 자동차엔진의 경우 Lea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기성접착제를 사용하면 다른 소재를 사용했을때 보다 많게는 40배에서 적게는 4배까지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기성접착제는 작업의 자동화를 기할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협기성접착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록타이트, 일본의 쓰리본드, SKC, 코락 등으로 알려졌다.
90년까지 국내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던 록타이트는 후발기업의 참여로 현재 60%까지 점유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후발기업으로는 일본의 쓰리본드가 8%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90년 이후 진출한 코락과 92년 10월부터 시장에 진출한 SKC도 시장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은 점유율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시장에는 이들 기업외에도 Chemitech, 포말셀, Felpro 등의 외국기업들도 진출해 시장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후발기업들의 시장선점 경쟁으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가격도 250ml 기준으로 1만2000원에서 3000만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기성접착제의 적용분야는 나사고정제와 파이프밀봉제, 축혈부고정제, 플랜지밀봉제 등으로 알려졌다.
각 적용분야별 시장구성 비율은 나사고정제용이 50%, 가스켓 및 파이프밀봉제용이 30%, 나머지가 2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화학저널 1994/10/3>